

‘이정호 황태자’ 광주FC 정호연 미국행 “더 큰 꿈 꾀다”

‘미국 프로축구 메이저리그’ 사커 미네소타 이적...2027년까지 ‘광주FC의 3년 성장의 시간...멀리서도 친정팀 열심히 응원할 것’

‘이정호 황태자’ 정호연(24·사진)의 도장깨기가 시작됐다. 광주FC 중원을 지휘했던 정호연이 미국프로축구 메이저리그 사커(MLS) 미네소타 유나이티드로 이적했다.

미네소타 구단은 2일 홈페이지를 통해 정호연의 영입을 공식 발표했다. 계약 기간은 2027년 12월 까지이며, 2028년까지 연장이 가능한 옵션이 포함됐다.

광주 금호고 출신의 정호연은 단국대를 거쳐 지난 2022시즌 광주 유니폼을 입고 프로 무대에 뛰어 들었다.

정호연은 데뷔 시즌 K리그2에서 36경기를 소화하면서 광주 중원을 지켰고, 이해 광주는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그는 2023시즌에는 K리그1에서 실력을 발휘했다. 34경기에 나와 2골 4도움을 기록하면서 광주의 3위를 이끌었고, 영플레이어상 주인공이 됐다. 또 항저우 아시안게임 대표로 금메달을 목에 걸면서 병역 혜택을 받았다.

지난 시즌에도 정호연의 활약은 눈부셨다. 팀에

서 가장 많은 시간을 뛰면서 K리그1 36경기에 나와 5도움을 올렸고, 아챔, 코리아컵 무대도 누볐다. 그는 홍명보 감독의 부름을 받아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1·2차전 소집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A매치 데뷔전도 치렀다.

정호연은 기복 없는 묵묵한 활약을 바탕으로 ‘정호연’을 풀어가면서 이정호 감독의 황태자라도 주목을 받았다. 앞선 시즌에도 해외 러브콜을 받았던 정호연은 마침내 이정호 감독의 품을 벗어나 더 큰 무대를 향한 도전에 나섰다.

정호연은 “항상 해외 진출의 꿈이 있었다. 광주에 대한 애정이 커서 국내 이적은 생각을 안 했다. 해외 도전에 대한 마음이 컸는데 마침 기회가 왔고, 쉽지 않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도전을 하게 됐다”며 “그저 도전하려 가는 게 아니라 더 높은 리그로 가고 싶기 때문에, 그 별관이라고 생각한다”고 이적 소감을 밝혔다.

정호연은 미네소타에서의 활약을 발판 삼아 더 큰 무대로 향하겠다는 각오다.

정호연은 “새로운 곳에서 아예 나를 모르는 곳에서 평가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인정받고 싶은 욕

구가 있었고, 대표팀에서 해외파 형들이 새로운 문화를 알려줘서 더 꿈이 커졌던 것 같다”며 “행동을 경험해 보고 느껴보니까 템포도 더 빠르고, 한국에만 있으면 느끼지 못하는 것들을 알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유럽에도 가고 싶고, A대표도 꾸준히 가고 싶다. 새로운 리그, 더 경쟁력 있는 리그를 가서 내 실력, 내 모습을 봐보고 싶다”며 “미국에서 더 좋은 활약, 더 좋은 퍼포먼스 그리고 기록에도 남는 공격 포인트 같은 것들을 더 생각해 내야 된다. 그 부분에서 더 발전된 모습을 보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에서의 지난 3년은 정호연에게 감사한 순간들로 남았다.

정호연은 “지난 시즌 많이 뛰어본 것도 성장의 발판이 됐을 것 같다. 많은 경기 치르면서 몸 관리하는 법, 어렸을 때 컨디션이 좋고 컨디션이 안 좋을 때 경기하는 방법 등을 다시 또 깨달았다”며 “축구를 하면서 A대표도 가고 싶고 데뷔도 해봤다. 내가 살아오면서 3년 동안 좋은 일들이 있어서 즐거웠던 3년이었다”고 말했다.

현지의 자신을 있게 한 이정호 감독을 향한 각별한 마음이 전해졌다. 정호연이 해외 진출을 앞두고 가장 고민했던 부분은 이정호 감독과의 작별이었다.

정호연은 “신인 때부터 믿어주셨다. 못할 때도 많았는데 끝까지 믿어주시고 기용해 주셨다. 그래서



미국프로축구 메이저리그 사커(MLS) 미네소타 유나이티드로 이적한 정호연이 새로 뛰게 될 알리안츠 필드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미네소타 홈페이지 캡처>

더 좋은 선수가 됐다고 자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고민이 컸다. 나를 알아봐 주시는 분을 떠나서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나라, 새로운 감독하고 한다는 게 고민 요소였다”며 “선수로서 사람으로서도 너무 많이 배운 3년이었다.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면 고쳐 주시고, 지적도 해주시고 그런 부분이 내가 사람으로 성장하는데 큰 디딤돌이 됐다. 너무 감사하다. 감독님 전술과 지도 아래 광주가 더 높은 곳으로 향하는 팀이 될 것이다. 나도 열

심히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팬분들이 나라를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사람으로 성숙해지고, 더 책임감을 가진 선수가 된 것 같다. 이별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이니까 많은 응원해주시면 좋겠다”며 “활동량과 공격적인 수비 그런 것들 하나하나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팀에서 인지도가 올라갈 것이다. 잘하는 것들을 하면서 조금씩 추가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

광주도시공사 핸드볼, 연승 불발

부산시설공단에 31-35로 져

광주도시공사가 이번 시즌 마지막 홈경기에서 부산시설공단을 상대로 패했다.

광주도시공사는 2일 광주 빙고체육관에서 열린 신한 SOL Pay 2024-2025 핸드볼 리그 여자부 경기에서 부산시설공단에 31-35로 지면서, 연승 도전에 실패했다.

광주도시공사는 지난달 30일 대구시청을 상대로 승리하며 이날 경기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다.

경기 초반 광주도시공사는 송혜수와 김수민의 연속 득점으로 기선을 잡았으나, 부산시설공단의 김다영, 신진희, 이해원에게 연속 실점하며 2-3으로 역전당했다. 이후 김지현이 득점하며 동점을 만들었지만, 부산시설공단의 연속 득점으로 다시 3-5로 밀렸다.

광주도시공사는 경기 중반까지 송혜수, 김지현 등의 활약으로 점수를 좁히려 했으나, 상대의 득점 행진에 전반전을 13-17로 마쳤다.

후반전 들어 광주도시공사는 김금순과 김지현의 연속 득점으로 15-17까지 따라붙으며 반격을 시도했다. 그러나 부산시설공단의 권한나와 연지현의 득점으로 다시 점수 차가 벌어졌고, 후반 11분에는 18-21로 끌려갔다.

후반 13분 부산시설공단 원선필의 퇴장 이후 김지현의 득점으로 19-22, 곧바로 상대팀의 권한나가 득점하며 점수 차가 다시 벌어졌다.

이후 김수민, 김서진 등이 연속 득점하며 22-24까지 추격했으나 부산시설공단은 권한나와 김다영의 득점으로 23-26을 만들며 경기의 흐름을 내주지 않았다.

광주도시공사는 후반 막판까지 끈질기게 따라붙었지만 결국 경기 흐름을 바꾸지 못했다.



광주도시공사 송혜수(왼쪽)가 2일 광주 빙고체육관에서 열린 부산시설공단과의 경기에서 슈팅을 시도하고 있다. <한국핸드볼연맹 제공>

후반 28분 송혜수가 연속으로 골망을 흔들며 31-33을 기록했지만, 부산시설공단 김다영과 이해원의 연이은 득점으로 광주도시공사는 결국 31-35로 패배를 확정 지었다.

광주도시공사의 송혜수가 9득점 7도움, 김수민이 7득점, 김지현이 6득점 1도움을 기록하며 분전했으나 팀 패배를 막지는 못했다.

부산시설공단은 이해원이 9득점 3도움을, 김다영이 8득점 6도움을 올리며 활약했다.

한편, 이날 경기에 앞서 광주시핸드볼협회 유석우 회장이 감사패가 수여됐다.

지난 2017년부터 유소년 선수 육성 및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의 동반 성장 등에 힘쓴 유 회장은 광주핸드볼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유 회장은 3일부로 8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여명현 당선인에게 협회장직을 넘긴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광주FC, 2025시즌 멤버십 카드 판매

베이직·프리미엄 36만~60만원

광주FC가 4일부터 2025시즌 멤버십 카드(사진)를 판매한다.

이번 시즌 멤버십 카드는 베이직, 프리미엄 2개로 나눠 제작됐다.

베이직 카드는 홈경기 입장권 20매와 선예매 권한, 홈경기 이벤트 우선 참여 혜택 등으로 구성됐다. 기존 구역제한을 없애면서 W, E, N석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가격은 36만원이다.

프리미엄 카드에는 베이직 카드에 제공되는 기본 혜택과 함께 선수단 사인볼 교환권 1매, K리그 홈 필드 유니폼 1벌, 스페셜 MD 패키지(목베개, 레디백, 키링 등) 등의 기념품이 추가된다. 가격은 60만원이다.

선예매 권한은 기존 예매일보다 2일 먼저 경기 티켓을 예매할 수 있는 혜택으로 1경기에 최대 4장까지 사용할 수 있다. 멤버십 선예매는 3라운드 FC안양전부터 할 수 있다.

멤버십 카드는 4일 오전 11시부터 광주 구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판매된다. 배송은 12일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광주는 올해 신규 입장권 정책을 도입해, 온라인 예매 시 3000원 할인 혜택을 준다.

전남드래곤즈도 28일까지 2025 시즌권을 판매한다.

시즌권은 차감형 카드 형태로 K리그2와 코리아컵(결승전 제외) 홈경기 20회를 관람할 수 있으며 ▲플래티넘(VIP석) ▲프리미엄(2인 테이블석) ▲골드(W석) ▲엘로우(E,N,S석) ▲리틀(W,E,N,S석/초등학생용) 5개로 구분된다.

플래티넘은 광양축구전용구장 내 정문 주차장에 주차가 가능하며, 본부석에 위치한 전용 게이트로 입장해 VIP라운지와 관람석을 이용할 수



있다. 동반 1인까지 무료입장이 가능하며 가격은 120만원이다. 2025 윈드브레이커도 증정된다.

프리미엄은 본부석 2인 테이블석과 정문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가격은 70만원으로 2025 유니폼 교환권 2장이 주어진다.

골드석은 지정 좌석제로 운영되며 시즌권 구매자에게는 선예매 혜택이 주어진다.

유니폼 교환권이 포함된 패키지 상품은 성인 27만원, 청소년 22만원이다. 패키지 없이 MD 10% 할인권 1장이 포함된 일반 판매가는 성인 22만원, 청소년 17만원이다.

일반석 시즌권인 엘로우 패키지는 성인 17만원, 청소년 12만원이며, 일반은 12만원, 청소년 6만원이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새롭게 출시된 리틀은 9만원에 판매된다. 구매자에게는 카드와 함께 보급형 유니폼 교환권이 주어지며, 시즌권을 지참하면 오프라인 스토어에서 시즌권 렌즈를 받을 수 있다. 시즌권 판매는 오는 28일까지 구단 홈페이지 및 온라인 인터파크를 통해 이뤄진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이강인 4호 도움

6골 더해 PSG서 첫 두 자릿수 공격포인트

이강인(23·파리 생제르맹)이 4호 도움을 올려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1 무대에서 처음으로 단일 시즌 두 자릿수 공격포인트를 달성했다.

파리 생제르맹(PSG)은 2일 프랑스 브레스트의 스타드 프랑시스 르 블레에서 열린 스타드 브레스트와의 2024-2025 프랑스 리그1 20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헤트트릭을 기록한 우스만 댐벨레의 활약 속에 5-2로 완승했다.

개막 이후 20경기에서 한 번도 지지 않은 PSG는 18개 팀 중 가장 먼저 승점 50(15승 5무) 고지를 밟으며 리그 우승을 향한 질주를 이어갔다. 한 경기를 덜 치른 2위 마르세유(11승 4무 4패·승점 37)와 승점 차는 13로 벌었다.

4-3-3 포메이션에서 오른쪽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한 이강인은 PSG가 2-1로 앞선 후반 17분 댐벨레가 헤트트릭을 완성하는 데 도움을 줬다.

오른쪽 측면에서 데지레 두에가 연결한 공을 이강인이 페널티박스 안에서 이어받으면서 환상적인 턴으로 상대 수비를 벗겨낸 뒤 골문 왼쪽으로 쇄도하던 댐벨레에게 연결했다.

댐벨레는 가볍게 오른발 슈팅으로 마무리해 공식전 2경기 연속 헤트트릭을 이뤘다.

이강인은 올 시즌 리그1 4호 도움을 기록했다.

지난달 13일 생테티엔과의 17라운드(2-1 승) 도움 이후 3경기 만에 공격포인트를 추가했다. 아울러 6골을 더해 올 시즌 리그1 20경기에서 두 자릿수 공격포인트를 채웠다.

이강인이 리그1에서 단일 시즌 두 자릿수 공격포

인트를 기록한 것은 처음이다.

PSG 입단 첫 시즌이었던 2023-2024시즌에는 23경기에서 3골 4도움을 올렸다.

이날 이강인은 PSG가 3-2로 앞서 있던 후반 36분 세니 마울루와 교체됐다.

PSG는 전반 29분 댐벨레의 선제골로 균형을 깨뜨렸다.

전반을 1-0으로 마친 PSG는 후반 5분 브레스트의 로맹 텔카스티요에게 원발 중거리 슈트로 동점골을 허용했다.

하지만 후반 12분 흐비차 크바라츠헨리아의 슈팅이 골키퍼에게 막혀 흘러나오자 댐벨레가 재차 오른발슈트로 골문을 열어 2-1로 다시 리드를 잡았다.

후반 17분 이강인의 도움에 이은 댐벨레의 세 번째 득점으로 3-1로 달아난 PSG는 후반 26분 뒤도 비크 아조르코에게 추격골을 내줬다.

이후 이강인이 벤치로 물러난 뒤인 후반 44분 역습 상황에서 곤살루 하무스가 왼발슈트로 골망을 흔들며 썩기를 보였다. PSG는 하무스가 추가 시간 한 골을 더 넣어서 골 차 승리로 경기를 끝냈다. /연합뉴스



2일(현지시간) 프랑스 브레스트의 스타드 프랑시스 르 블레에서 열린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19)이 브레스트 로맹 파브르(21)와 공을 다투고 있다. /연합뉴스